



산재 희생자 추모주간

산재 없는 세상을 향하여!

제15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다녀와서

‘산재희생자위령탑’

4월 28일. 아직 4월인데, 날씨는 초여름 날씨다. 눈이 부신다. 녹색 반사경 같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도착했다. 오늘이 ‘산재노동자의 날’이다. 몇 년 전 신문기사로 읽어 본 적은 있는데, 참석은 처음이다.



추모행사를 알리는 애드벨룬의 '제15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' 라는 문구가 선명하다. 15회, 협회는 15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.

'산재노동자와 협회의 '직업병클리닉'

'대한산업보건협회 50년' 는 산업재해와 맞닿아 있다. 1963년 협회 창립 배경에는 故최영태 박사와 조규상 회장이 진폐증 환자를 진료하면서 시작되었다. 진폐증 환자는 60~70년대를 대표할 만한 '산재노동자' 이다. 한 발 더 나아가 협회는 1965년 11월 한국 최초로 '직업병클리닉' 을 개설했다. 한국 유일의 진폐증환자의 진단과 요양을 병행하는 기관이었다. 직업병 클리닉은 산업재해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.

이처럼 협회 창립 정신에는 '산재노동자' 를 보살피겠다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. '재활격려상' 시상식 때 양팔에 목발로 된 보행 보조기구를 착용한 산재근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.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전율이 일었다. 지금까지 협회는 창립자들의 유지(有志)를 소홀히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. '치

